

# 은퇴유형 및 성격이 well-being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이 재 성<sup>1)</sup>

본 연구는 개인의 은퇴유형 및 비인지적 특성이 삶의 전반적 만족도, 행복정도 등의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0~74세 장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완전은퇴자가 미은퇴자에 비해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경증이 낮은 사람일수록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년층 중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발적 은퇴자가 비자발적 은퇴자에 비해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 통제소재, 상호성, 신뢰성 등의 비인지적 특성은 은퇴라는 상황과 관계없이 well-being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 은퇴유형, 성격, well-being, 비인지적 특성

## 1. 서론

의학의 발전과 향상된 생활조건으로 인해 개인의 기대수명은 예전에 비해 길어졌으며, 이에 따라 은퇴 후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도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과 학문적 관심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sup>2)</sup>.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전체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한 삶의 유지여부는 사회구조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OECD(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평균기대수명은 87.2세, 유효은퇴연령은 70.6세, 남성의 경우 평균기대수명은 84.3세, 유효은퇴연령은 72.9세로 각각 나타났다<sup>3)</sup>. 즉, 개인별로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노동시장 퇴장 후

1)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팀, 부연구위원, [jslee15@keis.or.kr](mailto:jslee15@ke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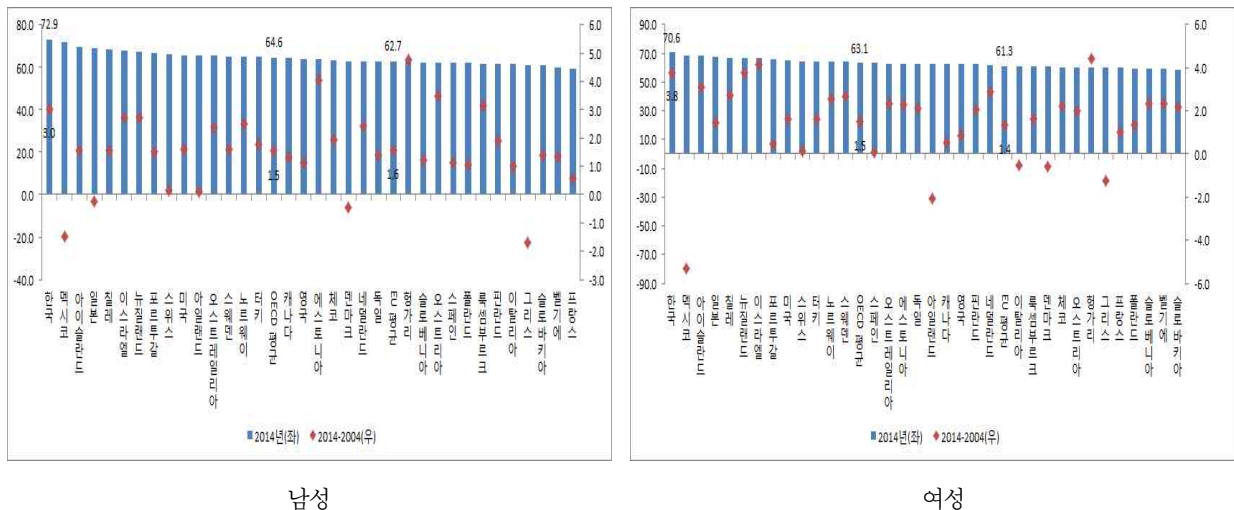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즉,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이미 2000년에 진입했으며, 14% 이상인 '고령사회'는 2018년(18년 소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는 2026년(8년 소요)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7%→14%까지 24년, 14%→20%까지 11년이, 미국의 경우 7%→14%까지 72년, 14%→20%까지 16년이, 서유럽의 경우 7%→14%까지 25년 이상, 14%→20%까지 40년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선영, 2013; UN, 2015).

3) 우리나라의 유효 은퇴연령은 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72.9세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8.3세, EU 평균과 비교하여 10.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70.6세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7.5세, EU 평균과 비교하여 9.3세 높은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04년과 비교하여 남성 3.0세, 여성 3.8세 증가한

개인이 보내야 하는 시간인 은퇴기간이 갈수록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퇴기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효 은퇴연령과 공식정년연령의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50대 중후반부터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70대까지 약 10년 이상의 장기간 고용불안과 사회적 제도의 지원 부재라는 이중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OECD 국가 유효 은퇴연령(2014년)

(단위: 세)



본 연구와 상당히 관련 있는 연구는 Dusanee, Robert, and Vasileios (2016)의 연구결과가 있다. 그들의 연구는 영국의 BHPS(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를 이용하여 개인의 은퇴 및 Big5로 대표되는 성격이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은퇴와 well-being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개인의 성격(big 5 personality)을 모형에 포함시켰고,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은퇴의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영국의 기초연금수급 연령을 도구변수로 하여 2SLS 기법을 적용하여 은퇴 및 성격이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은퇴는 개인의 여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지만, 삶의 전반적 만족도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반드시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개방성, 낮은 성실성 등 특정 성격의 경우 여성 은퇴자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남성 은퇴자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은퇴 및 성격이 개인의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8차 본조사 및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완전은퇴자’, ‘부분은퇴자’ 등이 ‘미은퇴자’와 비교하여 개인의 ‘생활전반 만족도’, ‘행복도’ 등의 well-being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격 및 성별이라는 개인별 이질적인 요소가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완전은퇴자가 미은퇴자에 비해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경증이 낮은 사람일수록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년층 중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자발적/비자발적 은퇴 및 비인지적 특성이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자발적 은퇴자가 비자발적 은퇴자에 비해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 통제소재, 상호성, 신뢰성 등의 비인지적 특성은 은퇴라는 상황과 관계없이 well-being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데이터 및 실증분석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3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 분석데이터 및 분석모형

### 2-1. 한국노동패널조사

본 연구에서는 은퇴유형 및 성격이 개인의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8차 본

조사, '18차 삶의 인식 부가조사' 및 '18차 장년층 부가조사'를 사용하였다. 장년층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개인의 은퇴와 관련된 변수를 설정하였고, 삶의 인식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삶의 전반적 만족도, 행복정도 등의 well-being 변수를 설정하였고, 성격, 통제소재, 상호성, 신뢰성 등의 비인지적 특성 변수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조사를 이용하여 부가조사에서는 포착되지 않은 성별, 학력, 거주지역 등의 개인 특성변수를 설정하였다. 즉, 3개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총 4,709명의 중장년층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개인의 노동시장 행위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그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는 1~19차 년도(1998~2016년)까지의 자료이며, 첫 해에 응답한 5,000가구 13,700여명의 응답자를 추적하여 그 동안의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된 조사 내용으로는 가구자료의 경우 가구의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부채, 주거형태, 가구원 구성, (사)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자료는 임금 근로자의 경우 직장 정보, 근무형태, 근로시간, 직장만족도, 임금, 종사상 지위, 교대제, 노동조합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사업체 정보, 종업원 수, 매출액, 근로시간, 만족도, 사업체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취업자 관련하여 구직활동, 희망 직장형태와 희망 임금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인조사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의 학교교육, 직업 훈련, 사회보장급여 수급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연도마다 사회적 혹은 학문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8차 부가조사의 경우 성격, 삶의 만족도, 행복도 등 개인의 비인지적 특성이 반영된 '삶의 인식 부가조사', 은퇴와 관련하여 장년층을 대상으로 부가조사가 시행되었다.

## 2-2. well-being

개인의 well-being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이 대체적으로 사용한 변수는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은퇴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은퇴가 개인의 소득이나 여가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만족도, 여가에 대한 만족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차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 제시된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well-being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삶의 전반적 만족도)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행복정도)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은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이하 사다리지수)"를 이용하였다. 3개 문항 모두 0~10점 사이의 값을 가지는 주관적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통계 분석 결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5.6점으로 나타났고, 행복정도는 5.9점, 사다리지수는 5.7점으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으로 well-being 정도는 중간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은퇴

한국노동패널조사 장년층 부가조사의 경우 만 50세에서 74세까지 5,153명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와 관련된 여러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은퇴여부, 은퇴시기, 은퇴나이, 은퇴이유, 은퇴 자발성 여부, 은퇴시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자녀수,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은퇴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sup>4)</sup>. 은퇴여부를 묻는 문항에 따르면, ‘(1)은퇴하였다’, ‘(2)주된 일자리에서는 은퇴하였으나 소일거리 일은 계속하고 있다’, ‘(3)은퇴하지 않았다’, ‘(4)과거에 한 번도 취업 활동을 한 적이 없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과 (4)번을 사용하여 ‘완전은퇴’로 하였고, (2)번을 사용하여 ‘부분은퇴’, (3)번을 사용하여 ‘미은퇴’로 설정하였다. 완전은퇴의 경우 전체 표본의 약 38.5%, 부분은퇴의 경우 약 2.6%, 미은퇴의 경우 약 58.9%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완전은퇴 23.4%, 부분은퇴 3.4%, 미은퇴 73.2%로 각각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완전은퇴 51.4%, 부분은퇴 1.9%, 미은퇴 46.6%로 각각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미은퇴의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 완전은퇴의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년층 중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자발적/비자발적 은퇴가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은퇴 자발성 여부 변수를 이용하였다.

## 2-4. 비인지적 특성

개인의 성격을 나타내는 Big5(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통제소재(locus of control)와 더불어 사회적 선호로 대표되는 상호성, 신뢰성과 같은 비인지적 특성은 교육성과, 노동시장 성과, 건강, 범죄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성과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lmlund *et al.*, 2011; 안태현, 고영근, 2016)<sup>5)</sup>. 개인의 비인지적 특성과 관련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 이외에

4) Honig & Hanoch (1985)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Retirement History Survey 1969년, 1971년, 1973년의 3차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55세 이상의 백인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완전은퇴(fully retired), 부분은퇴(partially retired), 미은퇴(not retired)로 나누어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임금이 0인 사람을 완전은퇴, 3차 자료 중 최고금액 임금의 1~50% 수준으로 받을 경우 부분은퇴, 50% 이상 임금수준 유지 시 미은퇴로 정의한다. Ruhm (1990)은 격년으로 조사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Retirement History Longitudinal Survey(RHLS) 1969년~1979년 기간의 6차 자료를 이용하여 58-63세의 남성과, 미혼 여성의 은퇴 유형을 살펴보았다. 주관적 은퇴 응답 질문인 “not retired”, “partially retired”, “retired” 변수와 소득을 이용하여 은퇴 유형을 분류하였다. 연간 근로 소득이 \$500보다 작은 경우 주관적 응답 변수와 관계없이 은퇴(retired)로 구분하였으며, \$500이상이면서 은퇴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부분은퇴로 구분하였다. 또한 \$500~\$2000사이의 근로소득이면서 은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도 부분은퇴로 구분하였다. 석상훈(2011)은 생애 근로를 그만두는 시점을 은퇴로 정의하여, 생애 근로경험이 없는 개인을 생애 무직자로 정의, 생애 근로경험 있는 사람 중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개인을 미은퇴자로 정의, 생애 근로경험이 있는 개인 가운데 현재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 및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않고 찾을 의사가 없는 개인을 은퇴자로 정의한다. 은퇴자 중 생애 마지막 일자리가 주된 일자리와 동일한 경우 완전은퇴자, 생애 주된 일자리 이후 가교 일자리를 통해 생애 근로가 끝나는 사람을 점진적 은퇴자로 정의한다.

5) 대표적인 비인지적 특성인 Big5의 경우, 영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에 시작된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BHPS), 1984년에 시작한 독일의 가구 구성, 고용, 임금, 건강, 삶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외국의 사례와 달리 청년층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노동시장, 소득활동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전국 규모 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는 제18차 부가조사에서 삶의 인식, 비인지적 특성에 관한 설문을 포함하였다.

『18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는 비인지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크게 개인의 성격 특성을 대표하는 Big5, 그리고 통제소재(내적, 외적), 상호성(긍정적, 부정적), 신뢰성에 관한 검사 문항을 도입하였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표현한 Big5는 각 요인당 3문항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믿음(내적통제), 환경 및 운명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믿음(외적통제)을 측정할 통제 소재는 전체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적 통제소재는 4문항, 외적 통제소재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자신이 받은 호의를 상대방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정도를 뜻하는 상호성은 전체 6문항이고 긍정적 상호성과 부정적 상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신뢰성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1~7점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후 회귀분석에서는 분석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균을 0으로, 표준편차를 1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표 1>에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개인의 비인지적 특성 변수 및 크론바흐 알파계수<sup>6)</sup> 값을 제시하고 있다. 각 변수별 크론바흐 알파계수 값을 살펴보면, 성실성, 신경증, 신뢰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변수가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GSOEP), 호주 노동시장의 동학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01년에 시작된 가구 단위의 패널 조사인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HILDA)와 같은 한 국가의 가구 및 가구원을 대표하는 종단면 설문조사에 포함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교육경험,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에 시작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에 Big5에 대한 설문조사가 2012년에 이루어졌다(안태현, 고영근, 2016).

6) 크론바흐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는 변수들 간의 신뢰성 또는 일관성(consistency)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크론바흐의 표준화된(standardized) 알파계수 공식은 다음과 같다.

$$\alpha = \frac{kM_{corr}}{1 + (k-1)M_{corr}}$$

$k$ 는 변수의 수이고,  $M_{corr}$ 는 2개 변수씩 짝지어 계산한 상관계수들의 평균이다. 만약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1이라면  $M_{corr}=1$ 이 되고, 따라서  $\alpha=1$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법칙으로 볼 때 알파계수가 0.8이상이면 매우 강한 일관성을 의미하며, 0.6이상이면 수용가능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7) 안태현, 고영근(201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비인지적 특성 중 Big5의 성실성과 신경증, 통제 소재의 문항 중 일부에서 크론바흐 알파 계수값을 감소시키는 문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의 (7)번, 신경증의 (15)번, 통제 소재의 경우 (4)번과 (7)번 문항이 이에 속한다. 이렇게 크론바흐 알파계수값을 감소시키는 문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 문항을 삭제한 후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갖는 문항만을 이용하여 비인지적 특성 변수를 재구성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해결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 사용한 비인지적 특성에 관한 설문은 축약 버전의 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요인별 문항이 많지 않아 하나의 문항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항을 삭제하여 재구성한 비인지적 변수를 사용할 경우 삭제된 문항이 갖고 있는 올바른 정보 또한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표 1> 크론바흐의 알파계수: 비인지적 특성

비인지적 특성		설문문항	알파계수
BIG5	개방성	나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다.	0.7621
		예술적 체험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나는 상상력이 아주 많다.	
	성실성	일을 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한다.	0.4753
		계어를 정도로 느긋한 편이다. (역점수)	
		일처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	
	외향성	사람들과 대화를 즐기는 편이다.	0.6765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나는 내성적인 편이다. (역점수)	
	친화성	다른 사람들에게 무뎌진 편이다. (역점수)	0.5008
		남과 싸워도 금방 화해하는 성격이다.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친절할 편이다.	
	신경증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0.3725
		매사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다.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느긋한 편이다. (역점수)	
통제소재	내적	내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0.4654
		누구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참여하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누구나 성공을 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역점수)	
	외적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0.6648
		인생의 성공은 운명이나 행운에 더 많이 좌우된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느낌이다.	
		내 인생의 기회는 무엇보다 내가 처한 사회적 여건에 좌우된다.	
		선천적 재능이 개개인의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상호성	긍정적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나도 보답 할 용의가 있다.	0.8835
		나에게 친절히 대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도와주겠다.	
		이전에 나를 도와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도와줄 용의가 있다.	
	부정적	누가 나에게 부당한 피해를 끼쳤다면 나는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즉시 되갚을 것이다.	0.8852
		누가 나를 곤경에 빠뜨린다면 내가 당한 만큼 그에게 되갚을 것이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맞받아칠 것이다.	
신뢰성	대체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0.2616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역점수)		
	남과 일을 할 때는 무조건 믿기보다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 (역점수)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삶의 인식 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2-5. 실증모형

본 연구에서는 은퇴 및 성격이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OLS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sup>8)</sup>.

$$Y_i = \alpha + \beta_1 X_i + \beta_2 R_i + \beta_3 P_i + \epsilon_i$$

$Y_i$ 는 모형의 종속변수로서 삶의 전반적 만족도, 행복정도, 사다리지수를 나타낸다. 설명변수  $X_i$ 는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 자녀수, 건강상태 등의 개인특성변수를 나타낸다.  $R_i$ 는 ‘완전은퇴’, ‘부분은퇴’, ‘미은퇴’의 은퇴유형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P_i$ 는 개인의 성격(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상호성, 신뢰성 등의 비인지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상의 분석모형은 만 50~74세 장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또 다른 모형으로 장년층 중 은퇴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비자발적 은퇴 및 비인지적 특성이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에서는 추가적으로 은퇴기간, 은퇴시 배우자 존재여부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 III. 실증분석 결과

### 3-1. 은퇴유형, 비인지적 특성, well-being

<표 2>에서 <표 4>까지는 만 50~74세 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유형 및 비인지적 특성이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well-being은 전반적 삶의 만족도, 행복정도, 사다리지수의 총 3개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4,709명이고, 이 중 남성 2,177명, 여성 2,532명으로 나타났다. 먼저 은퇴유형과 well-being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완전은퇴의 경우 미은퇴(계속취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well-being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분은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well-being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완전은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노후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요소가 노동시장을 퇴장하더라도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대로 부분은퇴자의 경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8) 순위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OLS모형을 사용하더라도 범주형 및 순위형 회귀분석 모형과 분석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Boyce and Wood, 2011; Ferrer-i-Carbonell and Frijters, 2004; Latif, 2011).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회귀분석은 OLS로 하였으나,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순위형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사용하는 ordered logit 모형을 병행하였고, 자세한 분석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후 준비 수준 및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미은퇴자에 비해 낮은 well-being 수준으로 나타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경우 남성의 경우 완전은퇴 및 부분은퇴가 미은퇴에 비해 well-being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완전은퇴가 미은퇴에 비해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인지적 특성과 well-being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경증이 높은 사람일수록 well-being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성별을 나누어 분석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몇몇 유의미한 Big5 요인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기 하지만 그 방향성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savayuth et al., 2016). 외향성과 개방성이 높을수록 well-being과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점은 외향성이 가지는 적극성, 활동성과 개방성이 가지는 지적 탐구, 열려 있는 경향 등이 높은 well-being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내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well-being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결과라 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well-being 수준에 중요한 작용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

9) 다른 통제변수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well-being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도움이 받지 않은 사람이 경제적 도움을 받는 사람에 비해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실증분석 결과(OLS):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체		남성		여성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성별	-0.090**	0.044	-	-	-	-
연령	0.016	0.053	0.024	0.074	0.001	0.074
(연령) <sup>2</sup>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중졸	0.063	0.056	-0.001	0.087	0.060	0.075
고졸	0.024	0.055	-0.057	0.080	0.044	0.077
전문대졸	0.110	0.094	0.031	0.120	0.192	0.153
대졸	0.270***	0.081	0.287***	0.104	0.214	0.132
대졸이상	0.438***	0.145	0.380**	0.161	0.553	0.342
거주지: 서울	0.163***	0.054	0.069	0.077	0.236***	0.076
거주지: 광역시	-0.003	0.045	-0.051	0.062	0.038	0.063
자녀수	0.061***	0.021	0.066**	0.032	0.058**	0.027
건강상태	0.346***	0.026	0.299***	0.038	0.355***	0.037
경제적 도움	-0.178***	0.053	-0.076	0.085	-0.205***	0.068
완전은퇴	0.134**	0.054	-0.671***	0.140	0.272***	0.063
부분은퇴	-0.167	0.131	-0.792***	0.201	-0.194	0.205
개방성	0.058***	0.022	0.080**	0.031	0.037	0.031
성실성	0.125***	0.022	0.129***	0.031	0.126***	0.032
외향성	0.035	0.025	0.019	0.035	0.052	0.035
친화성	0.075***	0.025	0.076**	0.035	0.073**	0.036
신경증	-0.180***	0.020	-0.136***	0.028	-0.216***	0.028
내적 통제소재	0.280***	0.022	0.290***	0.031	0.273***	0.032
외적 통제소재	-0.215***	0.021	-0.187***	0.028	-0.233***	0.030
긍정적 상호성	0.148***	0.022	0.182***	0.031	0.113***	0.032
부정적 상호성	-0.009	0.020	0.001	0.027	-0.004	0.028
신뢰성	0.061***	0.019	0.073***	0.027	0.044	0.027
상수항	3.700**	1.613	3.349	2.283	4.270*	2.277
adjusted R <sup>2</sup>	0.270***		0.298***		0.260***	
N	4,709		2,177		2,532	

주: \*\*\* /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본조사+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표 3> 실증분석 결과(OLS):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전체		남성		여성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성별	-0.120***	0.044	-	-	-	-
연령	0.096*	0.053	0.064	0.077	0.103	0.073
(연령) <sup>2</sup>	-0.001*	0.000	0.000	0.001	-0.001	0.001
중졸	0.093	0.057	0.089	0.091	0.053	0.074
고졸	0.112**	0.055	0.091	0.083	0.094	0.076
전문대졸	0.212**	0.095	0.144	0.125	0.317**	0.151
대졸	0.354***	0.081	0.387***	0.108	0.323**	0.131
대졸이상	0.547***	0.147	0.555***	0.167	0.517	0.337
거주지: 서울	0.177***	0.055	0.077	0.080	0.260***	0.075
거주지: 광역시	0.117***	0.045	0.108*	0.064	0.131**	0.062
자녀수	0.064***	0.021	0.045	0.034	0.074***	0.027
건강상태	0.413***	0.027	0.406***	0.039	0.392***	0.036
경제적 도움	-0.137**	0.053	-0.049	0.088	-0.157**	0.067
완전은퇴	0.142**	0.055	-0.565***	0.146	0.285***	0.062
부분은퇴	-0.049	0.132	-0.543***	0.209	-0.121	0.203
개방성	0.120***	0.022	0.128***	0.032	0.109***	0.031
성실성	0.099***	0.022	0.108***	0.032	0.095***	0.031
외향성	0.042*	0.025	0.024	0.037	0.062*	0.035
친화성	0.112***	0.026	0.124***	0.037	0.096***	0.036
신경증	-0.203***	0.020	-0.155***	0.029	-0.242***	0.028
내적 통제소재	0.238***	0.023	0.232***	0.032	0.246***	0.032
외적 통제소재	-0.184***	0.021	-0.169***	0.030	-0.188***	0.030
긍정적 상호성	0.158***	0.022	0.197***	0.032	0.119***	0.031
부정적 상호성	0.054***	0.020	0.053*	0.029	0.065**	0.028
신뢰성	0.071***	0.019	0.067**	0.028	0.064**	0.027
상수항	1.261	1.626	1.846	2.373	1.367	2.246
adjusted R <sup>2</sup>	0.284***		0.280***		0.299***	
N	4,709		2,177		2,532	

주: \*\*\* /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본조사+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표 4> 실증분석 결과(OLS): 귀하는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은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체		남성		여성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성별	-0.126***	0.044	-	-	-	-
연령	0.097*	0.053	0.079	0.077	0.110	0.073
(연령) <sup>2</sup>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중졸	0.046	0.057	0.091	0.090	-0.016	0.074
고졸	0.106*	0.055	0.078	0.083	0.113	0.076
전문대졸	0.201**	0.094	0.130	0.123	0.320**	0.151
대졸	0.406***	0.081	0.510***	0.107	0.245*	0.131
대졸이상	0.648***	0.146	0.632***	0.165	0.774**	0.337
거주지: 서울	0.237***	0.055	0.092	0.079	0.356***	0.075
거주지: 광역시	0.040	0.045	0.002	0.064	0.077	0.062
자녀수	0.088***	0.021	0.100***	0.033	0.082***	0.027
건강상태	0.426***	0.026	0.437***	0.039	0.393***	0.036
경제적 도움	-0.188***	0.053	-0.075	0.087	-0.227***	0.067
완전은퇴	0.129**	0.055	-0.488***	0.144	0.255***	0.062
부분은퇴	0.102	0.132	-0.325	0.207	0.043	0.203
개방성	0.064***	0.022	0.089***	0.032	0.041	0.031
성실성	0.107***	0.022	0.134***	0.032	0.091***	0.031
외향성	0.053**	0.025	0.021	0.036	0.088**	0.035
친화성	0.088***	0.025	0.088**	0.036	0.076**	0.036
신경증	-0.116***	0.020	-0.093***	0.028	-0.131***	0.028
내적 통제소재	0.287***	0.022	0.243***	0.032	0.330***	0.032
외적 통제소재	-0.217***	0.021	-0.209***	0.029	-0.214***	0.030
긍정적 상호성	0.180***	0.022	0.242***	0.032	0.119***	0.031
부정적 상호성	0.011	0.020	0.017	0.028	0.014	0.028
신뢰성	0.070***	0.019	0.050*	0.028	0.081***	0.027
상수항	0.956	1.620	1.116	2.348	0.856	2.248
adjusted R <sup>2</sup>	0.298***		0.323***		0.287***	
N	4,709		2,177		2,532	

주: \*\*\* /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본조사+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3-2. 자발적/비자발적 은퇴, 비인지적 특성, well-being

<표 5>에서 <표 7>까지는 만 50~74세 장년층 중 은퇴자를 대상으로 자발적/비자발적 은퇴 및 비인지적 특성이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well-being은 전반적 삶의 만족도, 행복정도, 사다리지수의 총 3개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077명이고, 이 중 남성 547명, 여성 530명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발적/비자발적 은퇴와 well-being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발적 은퇴의 경우 비자발적 은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반적 삶의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원인은 앞의 완전은퇴, 부분은퇴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발적 은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노후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요소가 노동 시장을 퇴장하더라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대로 비자발적 은퇴자의 경우 자발적 은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노후 준비 수준 등의 이유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성별을 나누어 분석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은퇴기간 정도는 well-being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인지적 특성과 well-being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앞의 모형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대체적으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경증이 높은 사람일수록 well-being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성별을 나누어 분석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내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well-being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결과라 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well-being 수준에 중요한 작용을 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개인의 성격, 통제소재, 상호성, 신뢰성 등의 비인지적 특성은 은퇴라는 상황에 관계없이 개인의 well-being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sup>10)</sup>.

10) 다른 통제변수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well-being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은퇴시 배우자가 있는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일수록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은퇴자 실증분석 결과(OLS):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체		남성		여성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성별	-0.137	0.098	-	-	-	-
연령	0.106	0.129	0.281	0.186	0.019	0.185
(연령) <sup>2</sup>	-0.001	0.001	-0.002	0.001	0.000	0.001
중졸	0.059	0.122	-0.101	0.177	0.124	0.173
고졸	-0.021	0.120	-0.195	0.159	0.029	0.191
전문대졸	-0.120	0.230	-0.278	0.292	-0.041	0.374
대졸	0.121	0.171	0.051	0.209	0.132	0.324
대졸이상	0.398	0.329	0.190	0.367	0.276	0.732
거주지: 서울	0.207*	0.121	0.322**	0.160	0.074	0.186
거주지: 광역시	0.024	0.099	0.101	0.132	-0.024	0.150
자녀수	0.051	0.047	0.133*	0.069	-0.027	0.066
은퇴시 배우자 유무	0.336***	0.115	0.893***	0.199	0.027	0.148
건강상태	0.389***	0.050	0.293***	0.067	0.478***	0.077
경제적 도움	0.015	0.094	-0.114	0.129	0.105	0.138
자발적 은퇴	0.166*	0.093	0.056**	0.116	0.314**	0.152
은퇴기간	0.006	0.013	-0.019	0.021	0.015	0.018
(은퇴기간) <sup>2</sup>	0.000	0.000	0.000	0.001	-0.001	0.000
개방성	0.094*	0.050	0.193***	0.067	0.000	0.076
성실성	0.124**	0.050	0.092	0.066	0.148	0.077
외향성	0.034	0.054	-0.028	0.072	0.121	0.081
친화성	0.088	0.054	0.076	0.068	0.092	0.087
신경증	-0.136***	0.044	-0.187***	0.058	-0.067	0.069
내적 통제소재	0.314***	0.051	0.264***	0.066	0.357***	0.081
외적 통제소재	-0.116**	0.046	-0.156**	0.060	-0.047	0.074
긍정적 상호성	0.129**	0.050	0.169**	0.067	0.048	0.079
부정적 상호성	-0.019	0.044	-0.005	0.058	-0.037	0.070
신뢰성	0.068	0.044	0.100*	0.057	0.056	0.069
상수항	0.091	4.064	-6.178	5.912	3.147	5.805
adjusted R <sup>2</sup>	0.283***		0.342***		0.244***	
N	1,077		547		530	

주: \*\*\* /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본조사+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표 6> 은퇴자 실증분석 결과(OLS):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전체		남성		여성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성별	-0.206**	0.099	-	-	-	-
연령	0.224*	0.130	0.341**	0.195	0.191	0.179
(연령) <sup>2</sup>	-0.002	0.001	-0.002	0.002	-0.002	0.001
중졸	0.064	0.123	0.095	0.186	-0.039	0.169
고졸	0.031	0.121	0.025	0.166	-0.046	0.186
전문대졸	0.002	0.231	-0.070	0.306	0.124	0.363
대졸	0.206	0.172	0.229	0.218	0.164	0.315
대졸이상	0.381	0.331	0.076	0.384	0.933	0.712
거주지: 서울	0.307**	0.122	0.351**	0.168	0.293	0.181
거주지: 광역시	0.203**	0.100	0.311**	0.138	0.121	0.146
자녀수	0.018	0.047	0.073	0.073	-0.027	0.065
은퇴시 배우자 유무	0.365***	0.116	0.693***	0.208	0.173	0.144
건강상태	0.507***	0.050	0.485***	0.070	0.509***	0.075
경제적 도움	0.048	0.095	-0.128	0.135	0.195	0.134
자발적 은퇴	0.121	0.093	0.133	0.122	0.022	0.148
은퇴기간	-0.007	0.013	-0.030	0.022	0.004	0.017
(은퇴기간) <sup>2</sup>	0.000	0.000	0.001	0.001	0.000	0.000
개방성	0.130**	0.050	0.232***	0.070	0.018	0.074
성실성	0.085*	0.050	0.067	0.069	0.091	0.075
외향성	0.075	0.054	-0.015	0.076	0.181**	0.079
친화성	0.131**	0.054	0.118*	0.071	0.147*	0.085
신경증	-0.139***	0.045	-0.155**	0.060	-0.117*	0.067
내적 통제소재	0.296***	0.052	0.201***	0.070	0.417***	0.079
외적 통제소재	-0.107**	0.047	-0.180***	0.063	0.004	0.072
긍정적 상호성	0.116**	0.051	0.201***	0.070	-0.046	0.077
부정적 상호성	0.062	0.045	0.060	0.061	0.053	0.068
신뢰성	0.083*	0.045	0.110*	0.060	0.082	0.067
상수항	-3.723	4.092	-8.666	6.192	-1.554	5.642
adjusted R <sup>2</sup>	0.328***		0.366***		0.302***	
N	1,077		547		530	

주: \*\*\* /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본조사+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표 7> 은퇴자 실증분석 결과(OLS): 귀하는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은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체		남성		여성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성별	-0.181*	0.098	-	-	-	-
연령	0.221*	0.129	0.256	0.190	0.261	0.181
(연령) <sup>2</sup>	-0.002*	0.001	-0.002	0.001	-0.002	0.001
중졸	-0.019	0.122	0.012	0.180	-0.088	0.170
고졸	0.032	0.120	0.018	0.162	-0.026	0.187
전문대졸	0.029	0.230	0.182	0.297	-0.159	0.367
대졸	0.269	0.171	0.297	0.213	0.293	0.318
대졸이상	0.510	0.329	0.382	0.374	0.885	0.719
거주지: 서울	0.240**	0.121	0.243	0.163	0.217	0.183
거주지: 광역시	0.095	0.099	0.034	0.134	0.178	0.147
자녀수	0.062	0.047	0.118*	0.071	0.015	0.065
은퇴시 배우자 유무	0.414***	0.115	0.612***	0.202	0.248*	0.146
건강상태	0.495***	0.050	0.529***	0.068	0.449***	0.076
경제적 도움	0.012	0.094	-0.165	0.131	0.188	0.135
자발적 은퇴	0.113	0.093	-0.022	0.118	0.231	0.149
은퇴기간	0.002	0.013	-0.011	0.021	0.006	0.018
(은퇴기간) <sup>2</sup>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개방성	0.134***	0.050	0.188***	0.068	0.075	0.075
성실성	0.115**	0.050	0.101	0.067	0.102	0.075
외향성	0.055	0.054	-0.014	0.074	0.134*	0.079
친화성	0.098*	0.054	0.112	0.069	0.064	0.085
신경증	-0.092**	0.044	-0.200***	0.059	0.041	0.068
내적 통제소재	0.307***	0.051	0.184***	0.068	0.479***	0.080
외적 통제소재	-0.142***	0.046	-0.130**	0.061	-0.130*	0.073
긍정적 상호성	0.156***	0.050	0.230***	0.068	0.041	0.078
부정적 상호성	-0.012	0.044	-0.029	0.059	-0.006	0.069
신뢰성	0.102**	0.044	0.107*	0.058	0.130*	0.068
상수항	-3.471	4.064	-5.892	6.022	-3.639	5.696
adjusted R <sup>2</sup>	0.342***		0.398***		0.303***	
N	1,077		547		530	

주: \*\*\* /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본조사+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I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에 따라 중장년층의 완전한 은퇴보다는 부분은퇴 혹은 노동시장 잔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부가조사(2016년 5월)』에 의하면, 고령자가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 약 58.0%,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약 34.9%, ‘집에 있으면 무료하여/시간을 보내기 위해’ 약 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이러한 현상은 정년제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완전은퇴를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내의 중장년층의 은퇴와 관련된 연구는 은퇴 결정요인, 은퇴 이후 소득 및 소비에 관한 연구 등이 중심이 되어왔다. 해외의 경우 은퇴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은퇴가 개인의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은퇴 유형 및 비인지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 행복정도 등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8차 본조사 및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만 50~74세 장년층을 대상으로 well-being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0~74세 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유형 및 비인지적 특성이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완전은퇴자가 미은퇴자에 비해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경증이 낮은 사람일수록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년층 중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자발적/비자발적 은퇴 및 비인지적 특성이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자발적 은퇴자가 비자발적 은퇴자에 비해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 통제소재, 상호성, 신뢰성 등의 비인지적 특성은 은퇴라는 상황과 관계없이 well-being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보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장년층의 은퇴와 관련된 연구가 앞으로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well-being 수준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은퇴 및 비인지적 특성이라는 요소가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상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은퇴유형은 외생적(exogenous)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에 의해 내생적(endogenous)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변수이다. 추후 은퇴유형에 대해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은퇴 및 개인의 well-being의 수준에는 개인 차원의 요소뿐만 아니라 한 국가내의 제도적인 요소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 사적연금과 같은 국가 및 개인의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산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즉, 다양한 형태의 금융자산과 부채 그리고 이 둘의 차이인 순금융자산규모 등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 참고문헌

- Andrea Bassanini and Eve Caroli (2015), “Is work bad for health?: the role of constraint versus choice,” *Annals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19/120**: 13–37.
- Christopher J. Boyce and Alex M. Wood (2011), “Personality and the marginal utility of income: personality interacts with increases in household income to determin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8**: 183–191.
- Dusanee Kesavayuth, Robert E. Rosenman and Vasileios Zikos (2016), “Retirement, personality, and well-being,” *Economic Inquiry*, **54(2)**: 733–750.
- Dusanee Kesavayuth and Vasileios Zikos (2017), “Happy people are less likely to be unemployed: psychological evidence from panel data,”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forthcoming: 1–15.
- Eric Bonsang and Tobias J. Klein (2012), “Retir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3**: 311–329.
- Ferrer-i-Carbonell, Ada and Paul Frijters (2004), “How important is methodology for the estimates of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The Economic Journal*, **114**: 641–659.
- Georg Henning, Isabelle Hansson, Anne Ingeborg Berg, Magnus Lindwall and Boo Johansson (2017), “The role of personality for subjective well-being in the retirement transition-comparing variable- and person-oriented mode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16**: 385–392.
- Joonmo Cho and Ayoung Lee (2014),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in the retirement process: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with Germany and Switzerland,”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9**: 179–195.
- Martin Binder and Alex Coad (2015), “Heterogene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 quantile approach,” *Economica*, **82**: 865–891.
-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Volume I: Comprehensive Tables*.
- 강은나 (2014), “은퇴전환기 중고령자 특성과 삶의 만족변화,” 『보건, 복지 Issue & Focus』, 23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영 (2016), “중고령자 은퇴 전후 소득과 삶의 만족도 변화,” 『고용패널브리프』, 2016년 여름호, 한국고용정보원.
- 안태현, 고영근 (2016), “비인지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성과,” 1-18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정선영 (2013),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BOK 이슈노트』, No. 2013-15: 1-20, 한국은행.
- 조동훈 (2015), “중고령자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패널분석,” 『응용경제』, 17(1): 5-27, 한국응용경제학회.

## 부록

<부표 1> 기초통계

	전체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삶의 전반적 만족도	5.618	1.499	5.637	1.448	5.601	1.542
행복	5.975	1.526	5.994	1.506	5.958	1.543
사다리	5.797	1.536	5.816	1.516	5.780	1.552
성별	0.462	0.499	-	-	-	-
연령	60.956	6.939	60.914	6.928	60.993	6.950
(연령) <sup>2</sup>	3763.808	857.158	3758.503	855.801	3768.369	858.467
초졸이하	0.238	0.426	0.161	0.368	0.304	0.460
중졸	0.216	0.412	0.195	0.396	0.235	0.424
고졸	0.347	0.476	0.384	0.486	0.316	0.465
전문대졸	0.057	0.231	0.079	0.270	0.038	0.190
대졸	0.090	0.286	0.133	0.340	0.053	0.224
대졸이상	0.020	0.138	0.035	0.184	0.006	0.079
거주지: 서울	0.180	0.384	0.171	0.377	0.187	0.390
거주지: 광역시	0.270	0.444	0.271	0.445	0.269	0.444
거주지: 그 외	0.550	0.498	0.558	0.497	0.544	0.498
자녀수	2.377	0.994	2.279	0.884	2.461	1.074
건강상태	3.233	0.797	3.330	0.773	3.150	0.807
경제적 도움	0.188	0.391	0.131	0.338	0.237	0.425
완전은퇴	0.385	0.487	0.234	0.424	0.514	0.500
부분은퇴	0.026	0.160	0.034	0.181	0.019	0.138
미은퇴	0.589	0.492	0.732	0.443	0.466	0.499
개방성	-0.230	0.998	-0.172	0.990	-0.279	1.004
성실성	0.029	1.000	0.117	1.017	-0.047	0.979
외향성	-0.010	1.023	-0.068	1.026	0.039	1.018
친화성	-0.047	1.036	-0.135	1.051	0.028	1.017
신경증	-0.007	1.021	-0.069	1.018	0.045	1.021
내적 통제소재	-0.031	0.995	0.009	1.014	-0.065	0.977
외적 통제소재	0.036	0.967	0.013	0.983	0.055	0.953
긍정적 상호성	0.020	1.017	0.028	1.016	0.012	1.019
부정적 상호성	-0.098	1.030	0.008	1.032	-0.189	1.020
신뢰성	-0.047	1.021	-0.019	1.027	-0.070	1.016
N	4,709		2,177		2,532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본조사+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부표 2> 실증분석 결과(ordered logit):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체		
	계수값	표준오차	odd ratio
성별	-0.120**	0.062	0.887
연령	0.030	0.074	1.031
(연령) <sup>2</sup>	0.000	0.001	1.000
중졸	0.103	0.079	1.109
고졸	0.054	0.078	1.056
전문대졸	0.181	0.132	1.199
대졸	0.405***	0.114	1.500
대졸이상	0.603***	0.205	1.827
거주지: 서울	0.235***	0.077	1.265
거주지: 광역시	0.000	0.062	1.000
자녀수	0.080***	0.029	1.083
건강상태	0.484***	0.038	1.622
경제적 도움	-0.263***	0.075	0.769
완전은퇴	0.210***	0.077	1.234
부분은퇴	-0.228	0.184	0.796
개방성	0.086***	0.031	1.090
성실성	0.187***	0.032	1.206
외향성	0.041	0.036	1.042
친화성	0.114***	0.036	1.121
신경증	-0.264***	0.029	0.768
내적 통제소재	0.402***	0.033	1.496
외적 통제소재	-0.302***	0.030	0.739
긍정적 상호성	0.212***	0.032	1.237
부정적 상호성	0.001	0.028	1.001
신뢰성	0.090***	0.028	1.094
cut1	-5.479	2.374	
cut2	-3.009	2.276	
cut3	-1.523	2.269	
cut4	-0.126	2.267	
cut5	1.191	2.266	
cut6	2.950	2.267	
cut7	4.078	2.267	
cut8	5.399	2.268	
cut9	7.347	2.270	
cut10	8.872	2.277	
pseudo R <sup>2</sup>	0.089***		
N	4,709		

주: \*\*\* /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본조사+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부표 3> 은퇴자 실증분석 결과(ordered logit):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체		
	계수값	표준오차	odd ratio
성별	-0.150	0.132	0.861
연령	0.130	0.172	1.139
(연령) <sup>2</sup>	-0.001	0.001	0.999
중졸	0.062	0.163	1.064
고졸	-0.036	0.160	0.965
전문대졸	-0.165	0.312	0.848
대졸	0.199	0.231	1.220
대졸이상	0.494	0.426	1.638
거주지: 서울	0.323**	0.162	1.381
거주지: 광역시	0.049	0.131	1.050
자녀수	0.063	0.063	1.065
은퇴시 배우자 유무	0.432***	0.156	1.541
건강상태	0.531***	0.068	1.701
경제적 도움	0.009	0.125	1.009
자발적 은퇴	0.147	0.123	1.158
은퇴기간	0.004	0.017	1.004
(은퇴기간) <sup>2</sup>	0.000	0.001	1.000
개방성	0.159**	0.068	1.172
성실성	0.166**	0.066	1.180
외향성	0.056	0.073	1.057
친화성	0.124*	0.072	1.132
신경증	-0.173***	0.060	0.841
내적 통제소재	0.462***	0.072	1.587
외적 통제소재	-0.147**	0.063	0.864
긍정적 상호성	0.171**	0.068	1.187
부정적 상호성	-0.036	0.060	0.965
신뢰성	0.092	0.060	1.096
cut1	-0.983	5.525	
cut2	1.726	5.443	
cut3	2.926	5.440	
cut4	3.874	5.439	
cut5	5.285	5.439	
cut6	7.003	5.441	
cut7	8.075	5.443	
cut8	9.280	5.443	
cut9	11.180	5.447	
cut10	13.337	5.474	
pseudo R <sup>2</sup>		0.097***	
N		1,077	

주: \*\*\* /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본조사+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